

투자에 취약한 '작은 손' 위한 자산관리 길잡이 센터

Q & A | 'KB증권 마곡 프라이머센터' 가보니

소액의 구독료 내면 PB가 자산관리 "아직 KB증권 고객센터서 연결 요청" PB상담서 KB증권 영업 철학 묻어나

프라이머(Prime) 센터는 상반기 KB증권의 야심작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일까. '큰손'이 아닌 '작은 손'을 택했다. 소액투자자와 온라인 고객이 대상이다. 금액과 관계없이 담당 프라이빗 뱅커(PB)가 투자 상담이나 자산관리를 도와준다.

6일 오전 9시 방문한 서울 마곡지구 KB증권 프라이머센터는 방문한 기자를 볼 새 초차 없이 바빠 보였다. 20명가량 PB가 칸막이 쳐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정보를 분석하거나 개인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프라이머센터가 개관 3일 만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정황은 숨 가쁜 PB들 모습에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소액투자임에도 PB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 요소였다. 무엇보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선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경제지 막내 기자가 직접 프라이머센터 PB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만일 KB증권에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첫 번째다. 신분증만 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약 3분 정도 소요된다.

프라이머센터에 연락하기까지 방법은 다소 번거로웠다. 디지털 플랫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오는 4월 '프라이머 클럽(Prime Club) 서비스'를 출시한다. 소액의 구독료만 내면 PB로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오픈보 수준으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KB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프라이머센터와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고객센터에 프라이머센터로부터 자산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후 번호를 남겼다. 대기자가 많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프라이머센터 PB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은 약 10분. PB와의 자산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됐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Prime센터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왼쪽 세번째), 김영길 WM부부장(오른쪽 두번째), 이흥구 WM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 김유진 Prime센터장(오른쪽 첫번째) 등 임직원이 개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기자를 주식 입문자라고 소개하자 PB는 "입문자라면 당장 주식을 사기보단 유망한 섹터에 대해 분석하라"고 조언했다. '입문자'임을 의식한 탓일까.

이후에도 PB는 상담 내내 무리한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모바일 자료까지 건네며 동향 파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했다. 기업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가의 등락 추이에 움직이는 ETF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PB는 "최근에

급등하던 테슬라가 5일 증가 기준 17% 가량 하락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업종에 기대는 테마 ETF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크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기차나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추가연계증권(ELS)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담당 PB는 "투자성향이 안정적이라면 리자드 쿠폰으로 출시된 ELS를 사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조기상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ELS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약 15분간의 투자 상담은 여윌듯 재테크 전략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달마다 100만원 정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법에 관해 물었다. 그는 "ETF가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한 종목의 ETF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여러 ETF에 분산 투자하라"고 권했다. 정보기술(IT), 전기·전자, 전기차 관련 ETF를 추천했다.

프라이머센터 PB와의 상담에선 KB증권의 자산관리(WM) 영업 철학이 묻어났다. WM 영업의 경쟁력 강화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가장 큰 경영성과로 꼽힌다. 박 대표가 맡은 WM자산은 2018년말 2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0조원으로 약 47% 늘어났다. KB증권이 출범했던 2017년 초 1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번 프라이머센터의 출범 취지는 상대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취약한 온라인 고객들을 위해서였다. 프라이머센터는 박 사장의 WM 핵심 가치인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대변하고 있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월별 경상수지>

(단위:억달러, %)

	2018		2019p	
	12	연중	11	연중
경상수지	49.1	774.7	59.7	43.3
1. 상품수지	66.3	1100.9	73.9	50.3
1.1 수출*	497.7	6262.7	465.0	480.4
	(-1.0)	(7.9)	(-10.3)	(-3.5)
1.2 수입(FOB)*	431.5	5161.8	391.1	430.1
	(1.9)	(10.6)	(-11.7)	(-0.3)
2. 서비스수지	-18.5	-293.7	-18.9	-25.0

*국제수지의 상품 수출입은 국제수지매뉴얼(BPM6)의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모든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므로 통관기준 수출입과는 차이가 있음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작년 경상수지, 경제악재 탓 7년 만에 최저

한은 22년 연속 흑자지만 175억弗 ↓

지난해 경상수지가 1998년 이후 2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175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글로벌 경제악재가 지속된 탓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599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487억9000만달러 이후 최저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인 상품수지는 768억6000만 달러로 전년(1100억9000만달러)보다 332억3000만달러 줄었다. 지난해 수출은 5619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수입 또한 6.0% 줄어든 485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요품목 단가하락 ▲대 중국 수출부진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122억 달

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배당수입이 22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1위다.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해외 투자자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230억2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367억3000만 달러), 2018년(-293억7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여행수지 적자가 106억7000만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운송수지 적자도 16억2000만 달러로 2017년(-54억2000만달러), 2018년(-25억1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무역물동량이 줄면서 수입보다 지급이 더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됐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57억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1억6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34억달러가 늘었다. 특히 외국인 국내 투자는 역대 1위 규모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지분 투자 영향이 반영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일단 맞춰라” 증권사 웬만하면 자기자본 4조

(규제비율)

하나금융 증자로 4조대 증권사 8개 자본 증가만큼 ROE 낮아질 수 있어 금융위, 우발채무 한도 축소 권고

하나금융투자의 증자로 자기자본 4조원대 증권사는 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만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2곳에 불과했다. 불과 4년새 국내 증권업계의 몸집이 커진 것이다.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사의 사업영역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규제환경이 증권사 자본 확대의 배경이 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나금융투가 5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증권사에 8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증자대금은 3월 26일 납입예정으로 1분기 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다.

현재까지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

융투자, 메리츠증권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자기자본 4조원을 조건으로 하는 초대형 IB 승인을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수 있고, 8조원 이상을 충족하면 종합투자계좌(IMA)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자본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자기자본 4조원인 증권사가 3000억원을 버는 것보다 1000억원을 버는 자기자본 1조원대 증권사의 ROE가 현저히 높고, '영업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올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대 배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표 뿐만 아니라 ROE 저하를 감내하고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에 게 내년 7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우발채무) 한도를 100% 이내로 축소할 것

을 권고했다. 국내 PF 강자인 메리츠증권의 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은 145% 수준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증자배경 중 하나로 "최근 감독당국의 규제 비율 등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불만은 커진 상황이지만 일단은 부채 축소와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규제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PF 수익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는 '일단 기준에 맞춰라'는 주문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무작정 PF를 줄이는 것은 자본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확대도 규제 비율을 최대한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고객 맞춤형상품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 ↑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소비특성 등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신용정

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에 빅데이터 활용업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기능 여부가 불명확한 측

면이 있었다"며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는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